

# 판 키우는 '광주·전남 통합'... 경찰청장 '단체장 동의' 검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치안 권한 배분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가 행정통합을 계기로 시·도경찰청장 임용 과정에 통합단체장의 동의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자치경찰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 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8일 광주자치경찰위원회(광주자경위)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에 행정통합과 연계한 4가지 제도 개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광주자경위는 해당 안들에 대해 '이의 없음'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가 검토를 요청한 4가지 개선안 가운데 핵심은 통합 자치단체 경찰청장 임용 방식 변경이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도경찰청장을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가 검토 중인 안에는 시·도경찰청장 임용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의'가 아닌 '통합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 체계상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지역치안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맡고 있지만 시·도경찰청장 인사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경찰청장이 지역 의견을 듣는 수준의 협의 절차만 보장돼 있다.



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2층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뉴스1

## 시·도경찰청장 임용, 통합단체장 동의 반영 현행법 경찰청장·자치경찰위 '협의'만 규정 자치경찰 실질화... 정치중립성 훼손 우려도

광주시 안처럼 단체장 동의를 임용 요건으로 명시할 경우 시·도경찰청장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를 두고 광주시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치안 분권'까지 염두한 것이냐는 해석이 나온다.

자치경찰 제도는 2021년 전국 시행됐지만 권한은 여전히 국가경찰에 집중돼 있어 출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제도 설계 당시부터 '인사권 없는 자치경찰은 형식적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반복됐다.

단체장 동의가 지역 경찰청장 임용의 전제가 될 경우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인사가 지방경찰 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국가경찰 소속 경찰관이 자치경찰 영역으로 이동할 유인도 생길 여지도 있다.

반면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함께 국가 치안 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함께 치안 권한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번 논의가 향후 자치경찰 제도 개편 논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권철 기자



## 전남교육청, 글로벌 인재 양성 '박차' 반도체공동연구소 협력, 대만 기업 방문 등 집중교육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AI·에너지 교육 밸리' 정책을 기반으로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남교육청은 업무협약을 맺은 호남권 반도체공동연구소와 협력해, 도내 고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견학을 넘어 국내 대학의 심화 이론·실습과 해외 반도체 산업 현장 연수를 결합한 전국 최고 수준의 장기·집중형 교육과정이다. 도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1학년 학생 48명과 교사 12명이 참여하며, 학생과 교사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은 지난 6일 시작해, 9일까지 전남대학교에서 실시된다. 참여 학생들은 ▲반도체 개론 및 공정 이론 ▲포토리소그래피 ▲금속 증착 ▲분석 등 핵심 공정 전반을 학습한다. 특히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클린룸 장비를 활용한 실무 실습을 병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국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1월 중 1:2기로 나누어 6박 7일간 대만 글로벌 연수에 나선다. 대만 융화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전문 실습 교육을 받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 혁신센터를 비롯해 TSRI(반도체연구원), NEXCOM, SAA 등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현장 견학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생산 구조와 기술 흐름을 배운다. 연수 종료 후에는 국제 인증서도 수여받아 개인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다.

교사들 또한 별도의 연수 과정을 통해 급변하는 반도체 기술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접목할 진로 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가 연계된 견고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전성이 진로교육과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남 학생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과 세계적 산업 현장에 동시에 경험하며 미래의 꿈을 구체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남형 미래 인재 양성 정책에 교실을 넘어 실제 현장 교육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염성호 기자

## 이재명, 시진핑에 "광주 우치동물원에 판다 대여 요청"... 어떤 곳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판다 대여지로 언급된 광주 우치동물원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중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시 주석에게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주 우치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우치동물원은 지난 1992년 개장한 광주 북구 생용동 패밀리랜드 내 조성된 동물원이다.

1991년 광주 남구 사직공원에 있었던 동물원을 이전해 조성한 곳으로, 대표 동물인 코끼리와 호랑이 등을 포함해 포유류와 조류·파충류 등 총 89종 667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기르던 풍산개 2마리(송강·곰이)도 2022년 12월부터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주동물원에 이어 환경부 지정 제2호 국가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거점 동물원 지정에 따라 5년 동안 매년 3억원씩 지원금을 받게되면서 야생동물 보호와 동물 치료 등에 투입하고 있다. 우치동물원은 이 대통령에 의해 판다

대여지로 언급됐지만, 현재 동물원 내에는 판다사가 마련돼 있지 않다.

향후 판다 대여 관련 절차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사육 시설 신축이 논의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판다 대여 요청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양국 우호 선린 관계에 있어 한국인들에게 증표를 보여줄 수 있는 판다가 좋은 교류가 될 것이다. 광주 동물원에 판다가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번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전민규 기자

##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힘을 실었다

8일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81명이 참여해 97.8%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반대는 2.2%다.

'행정통합이 된다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생

## 세계호남향우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97.8% 압도적 찬성 '6·3 지방선거서 통합 단체장 선출' 81% 찬성

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 81.8%, 반대 18.2%를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호주, 캐나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호남향우들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를 시행한 정광일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호남인들에게도 매우 큰 이슈"라며 "절대 다수가

행정통합에 찬성을 하고 있다. 통 큰 통합으로 호남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타 지역 통합에 촉매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설문 결과를 광주시와 전남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현근 기자

## 광주교육청,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합격발표... 1만1711명

광주교육청이 8일 교육청 누리집 및 나이스 고입 시스템,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의 합격선은 내신석차 백분율 98.37%다. 총 지원자는 1만1762명(정원 내 1만1561명·정원 외 고입특례, 특수교육, 국가유공자 등 201명)이었으며 이 중 1만1711명(정원 내 1만1510명·정원 외 201명)이 합격했다. 불합격자는 51명(정원 내 51명)이다.

평준화 일반고 합격선은 전체 평준화 일반고 정원 대비 총 지원자의 내신석차 백분율로 정해졌다. /이승원 기자

올해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지난해 24.6명에서 24.7명으로 0.1명 늘었다. 지난해 대비 중학교 3학년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정원 조정이 반영된 것이다. 평준화 일반고의 합격선은 2024학년도 91.406%에서 2025학년도 97.931%로 크게 낮아졌으며 2026학년도 98.374%로 하향 추세를 이어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전기고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평준화 일반고 합격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은 22일 오전 10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승원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